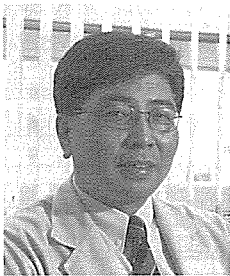


전립선 질환과 남성기능

전립선이란 정액의 액체성분으로 정자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남성 고유의 샘물조직이다. 오랫동안 전립선염으로 고생한 사람들은 조루증·성욕감퇴·발기부전증 등을 호소하는데, 전립선 질환과 남성의 성기능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기관의 이상이 성기능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들로 하여금 성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



鄭定萬
〈준남성클리닉 원장〉

좌 절과 희망이 공존했던 시대, 냉전과 동시에 화합의 1백년, 양차 대전이 있었고 갈라졌던 독일이 통일한 20세기, 이 복잡다단했던 세기 말을 대표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다. 중국의 작은 거인 '등소평'이 세상을 등졌고, 예술의 나라 프랑스를 이끌던 '프랑수와 미테랑' 대통령 역시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등소평의 죽음이 90이 넘는 나이에 맞이한 당당한 호상(好喪)이라면 미테랑대통령의 죽음은 같은 남성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것이었다. 미테랑대통령의 사인(死因)은 '전립선 암'. 성인 남자만을 괴롭히는 질환이다. 병마가 대적해오는

데는 대통령도 별 수 없었던 모양이다.

미테랑도 전립선 암 사망

성인 남자라면 거의 대부분 '전립선'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전립선이란 정액의 액체성분을 이루며 정자에게 활력과 양분을 공급하여 수태능력을 보강시켜주는 남성 고유의 샘물조직이다. 비뇨기와 외래를 찾는 남성들의 절대 다수가 바로 이 전립선 트러블이다. 전립선에 문제가 생겨 한창 때의 젊음을 어둠 속에 처박고 고통으로 방황하는 남자가 한둘이 아니다. 전립선에 탈이 생기면 으레 옛 배뇨증상에 문제를 수반한다. 요도의 일부분이 전립선 중양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변이 자주 마렵고 배뇨 뒷끝이 개운치 않다. 아랫배나 회음부가 무겁고 불쾌하며 요도가 거북해지는 증상이다. 청장년층의 연령에 많은 만성 전립선염의 증상들이다. 그러나 노령의 전립선 트러블은 사뭇 다르다. 오줌발이 약해지고 오줌줄기가 가늘어진다. 배뇨 개시에 시간

이 걸리고 가끔 오줌 줄기가 중간에 끊어지기도 하며 소변이 급해져서 참기가 어려워지기도 한다. 게다가 빈뇨와 잔뇨증세를 보이며 심하면 어느날 갑자기 한방울의 소변마저 내보내기가 어려워지는 소위 급성 요폐증에 이르기도 한다. 이런 모든 증상들을 전립선증(prostatism) 혹은 하부요로 증상이라고 일컫는다. 노령의 전립선 장애는 주로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전립선 트러블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대개 성기능 장애를 함께 호소한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만성 전립선염으로 고생한 사람들은 조루증과 사정통, 혈정액과 같은 비뇨기계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며 나중엔 성욕감퇴, 발기부전증까지 토로하기도 한다.

전립선과 정낭, 사정관 그리고 후부요도는 해부학적으로 인접해 있고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립선의 염증은 쉽게 후부요도염 및 정낭염을 합병할 수 있다. 후부요도에 염증이 있으면 그곳이 과민해져 조루증의 기질적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정낭에 염증이 파급되면 혈정액이나 사정통을 보일 수도 있다. 특히 사정관이 막히거나 전립선 내부에 결석이 있을 때는 이런 증상들이 심화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전립선 트러블이 성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남성의 하부요로계와 생식기계는 발생학적으로 상호 연관성이 있어 이 두 계통은 결국 최종통로가 동일하고 혈관계와 신경계도 상당부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부요로 증상과 성기능이 관련될 수 있는 근거를 지니고 있다. 실제로 '전립선 증상 때문에 성기능이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환자들이 많다.

불안 등 심리적 요인 영향

그러나 현재까지 전립선 질환과 남성기능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만성 전립선염이 난치경향을 보여 오랫동안 고생하다보면 전립선 노이로제 환자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성기관의 이상이 곧 성기능의 이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는 환자들이 많다. 자포자기, 불안, 초조, 상대 여성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는 오해, 죄의식 등 심리적 요인들이 성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다.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암 그 자체가 성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질병의 치유수단, 즉 수술이나 기타 약물에 의해 발기부전을 위시한 여러 가지 성기능 장애를 만들기도 한다. 전립선의 양측, 5시와 7시 방향에는 발기신경 다발이 지나가는데 전립선 수술을 하는 도중 이 신경 다발에 손상을 주게 되면 발기부전증이 된다. 개복 수술이든 내시경 수술이든 마찬가지다. 현재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테라조신, 독사조신, 탐솔로신, 알푸조신 등의 알파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차단제는 성기능 장애를 거의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독사조신은 발기부전을 동반한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서 발기부전의 개선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항남성호르몬제로 최근에 개발되어 처방되고 있는 파나스테라이드는 약 3~4%에서 사정액 감소, 성욕감퇴와 발기부전을 초래하지만 약을 중단하면 회복될 수 있다. 또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은 환자의 80~90%가 역행성 사정을 한다. 사정시에 방광경부가 완전히 닫히지 않아

정액이 여성의 질이 아닌 자신의 방광 안으로 사정이 되는 경우이다. 즉 발사의 느낌은 있되 흔적이 없는 경우다. 경요도적 전립선 절개술의 경우 역사정이 10~25% 정도다. 근치적 전립선 수술은 사정불능 및 발기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 최근에는 발기신경을 보존할 수 있는 수술방법이 발견되어 전립선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수술방법에 문제점이 있다면 전립선 경계부위를 아주 얇게 남겨두어야 하기 때문에 암세포의 안전 제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이다.

부산대학교 정문기교수는 하부요로 증상과 성기능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해 보기 위해 전립선 클리닉을 방문하는 50세 이상의 남자 가운데 발기가능 여부, 성관계 빈도, 성기능에 대한 만족도를 역학조사와 더불어 비교한 바 있다. 50세 이상의 50% 정도가 하부요로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 1990년 현재 50세 이상의 남자는 3백여만명으로서 전체인구의 7%, 남자인구의 14%이다. 특히 60~70대가 1백23만명으로 남자인구의 5.7%로써 50세 이상 남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50대 이상 남성 중 약 1백50만명이 배뇨장애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추산할 수 있다.

60대 70%가 성관계 계속

역학조사 결과 60대의 70.5%, 내원 환자의 85.5%, 그리고 70대의 42.6% 및 75.4%가 발기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60대의 68.1%가 성관계를 계속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19.2%는 주 1회 이상의 성관계를 하고 있고 내원 환자의 83.7%가 섹스를 하고 있으며 이중 22%가 주 1회 이상 성관계를 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60대의 20% 이상에서는 젊은 사람 못지않은 성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역학조사에서 60대의 36%, 내원환자의 48.7%가 성적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하부요로 증상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발기능력, 성관계 빈도, 성기능 만족도가 낮았으며 심한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발기능력, 성관계 빈도, 성기능 만족도가 약간씩 감소되었다. 또 오줌발이 약하거나 오줌 줄기가 가늘어질수록 발기능력, 섹스 빈도, 섹스 만족도가 모두 떨어져 있어 '소변 줄기가 굵을수록 정력이 세다'는 속설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남성에게만 나타나는 전립선 트러블, 다른 수많은 질병과 마찬가지로 미리 이 질환을 예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남자로 태어난 이상, 누구나 이 병이 발병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특히 미테랑대통령마저 죽음으로 몰고간 전립선 암에 이르면 예방책도, 대비책도 없다. 다만 다른 여타의 암처럼 조기 발견과 꾸준한 치료만이 극복의 대응책이다. 특히 50세 이상의 중년이 되면 아무 이상이 없더라도 건강진단을 목적으로 매년 한번씩 직장 수치검사, 전립선 초음파 검사, 대부분의 경우 전립선 암의 종양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혈중 PSA의 측정 등을 통해 전립선 비대증의 유무를 체크하고 전립선 암의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여 뿌리 뽑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대처하는 자만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자격이 있다. 자신을 사랑하고 건강하게 인생을 마감하려는 최선의 노력만이 당신에게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줄 것이다. ④7